

윌리엄 포크너의 『내려가라, 모세여』에 나타나는 생태주의적 비전 읽기

김 미 정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20세기 초 미국의 환경 파괴를 배경으로 윌리엄 포크너는 백인들이 미국이라는 '신세계'에 이식해놓은 진보의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불신했고, 탐욕과 강탈을 특별히 미국식 모습으로 진단하였다. 특히 미국 대살림의 파괴와 토착 원주민 문화의 말살은 대상을 정복/소유/지배하려는 근대적 백인 문명의 산물로 땅의 소유 및 노예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러한 포크너의 시대적 고민과 생태주의적 관심이 집약적으로 반영된 『내려가라, 모세여』를 통해 '생태주의적 비전'의 실천 방법과 가능성을 탐구하고 제시해 볼 것이다. 또한, 생태주의적 인식과 비전이 타자(the other)에 대해 적대적이며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관계를 비판하고 윤리적 책임에 근거하여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맥락에서 새로운 관계 방식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7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에서 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생태주의적 사유 및 존재 방식이 동시대 사회 구성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도 연관된다는 사실을 고찰할 것이다. 「곰」에서는 주인공이 생태주의적 인물로 성장하는 과정을, 「델타 가을」에서는 주인공이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함으로써 초래되는 파국적 결과를, 「내려가라, 모세여」에서는 작품의 열린 결말을 해석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공존과 상생'의 미래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자연, 윤리, 인간의 여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포크너의 시대를 초월한 생태주의적 주제를 탐구해볼 것이다.

주제어: 윌리엄 포크너, 『내려가라 모세여』, 생태주의, 공생과 상생, 윤리적 선택과 행동

1. 들어가는 말

생태주의적 비전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자연환경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생태계 구성원 중 하나인 인간의 선택과 행동이 생태계의 건강과 조화로운 균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생태주의적 비전은 타자(the other)에 대해 적대적이며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관계를 비판하고 윤리적 책임에 근거하여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맥락에서 새로운 관계 방식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일로 연결된다.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논의하기 위해 본 논문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내려가라, 모세여』(*Go Down, Moses*, 1942)¹⁾를 통해 ‘생태주의적 비전’의 실천 방법과 가능성을 탐구하고 제시해볼 것이다. 포크너가 『내려가라, 모세여』를 쓰던 20세기 초의 상황은 미시시피강 주변의 원시림이 단 50년(1880년부터 1930년까지) 만에 거의 사라져버릴 정도로 미국 역사에 있어서 유례없는 환경 파괴가 자행되던 시기였다(Prewitt 1999:200; 박양근·배영주 2013:35에서 재인용). 서구 문명의 도덕적 기반과 영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던 20세기를 살아가던 사람으로서 포크너는 백인들이 미국이라는 ‘신세계’에 이식해놓은 진보의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불신했고, 탐욕과 강탈을 특별히 미국식 모습으로 진단하였기에, 미국 대삼림의 파괴와 토착 원주민 문화의 말살은 대상을 정복/소유/지배하려는 근대적 백인 문명의 산물로 땅의 소유 및 노예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그가 보기에, 미국의 역사는 대자연에 대한 백인의 정복 역사이며, 그 과정에서 흑인은 노예로 전락하여 착취되었고 인디언은 야만인으로 규정되어 말살될 지경이 된 것이다. 『내려가라, 모세여』는 이러한 포크너의 시대적 고민과 생태주의적 관심이 집약적으로 반영된 작품으로 역설적이게도 주요 인물들의 실패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이 왜, 어떤 지점에서 실패하는지 독자들로 하여금 숙고하고 성찰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맥락의 생태주의적 비전을 가능하게 한다.

1) William Faulkner, *Go Down, Moses*, (New York: 1942). 앞으로 본문 인용은 괄호 안에 GDM 약어와 쪽수만 기입하기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내려가라, 모세여』에 수록된 세 개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생태비평적 관점, 책임의 개념, 세대의 순환적 특성을 강조하여 이 소설의 근본적인 주제와 메시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우선 「곰」에서 집약적으로 재현되는 생태주의적 사고와 삶의 방식을 분석하면서 ‘생태주의’ 개념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특히, 주인공 아이작 맥캐슬린(Isaac McCaslin)이 스승인 샘 파더스(Sam Fathers)와 대삼림 황야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깊은 지혜를 배웠는지, 토템적인 곰 올드 벤(Old Ben)과 조우하게 되면서 야생과 교감하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생태주의적 비전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델타 가을」에서는 어린 시절 포크너의 생태주의적 문제의식을 대변하던 소설 속 핵심 인물인 아이작이 어쩌서 자신의 소명, 혹은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와 무엇이든 살피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제작인 「내려가라, 모세여」에서 그려지는 열린 결말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의 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을 다 하는 것이 어떻게 소설의 제목 “내려가라, 모세여”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다음 세대의 모세형 인간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소설의 결말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 겨울이 지나면 또 다른 봄이 오듯이 현재의 어두운 고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 무엇이 제시되고 있는지까지 논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자연, 윤리, 인간의 여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포크너의 시대를 초월한 생태주의적 주제를 탐구해볼 것이다.

II. 「곰」에서 집약적으로 재현되는 생태주의적 비전

포크너는 소설에서 미국 남부의 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경과 공생의 관계로 연결된 것으로 묘사하는데, 그 이유는 둘 다 백인에 의한 기생/착취 관계로 고통받기 때문이며, 포크너에게 인종, 가난, 계급이나 그 밖의 다른 사회적 문제들은 모두 환경문제이다(Sivils 2006:489-92; 김미나

2021:16에서 재인용). 『내려가라, 모세여』에서 이러한 포크너의 생태주의적 문제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핵심인물은 아이작 맥캐슬린(Isaac McCaslin; ‘아이작’이라는 이름은 성서 속 ‘이삭’에 해당하며 ‘약속된 가나안 땅’을 물려받기로 되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김미정 2015:49)이다. 이 작품은 성서의 『출애굽기』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이작은 “신의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을 해방시킬”(to set at least some of His lowly people free; *GDM* 248) 사명을 떠맡아 모세의 역할을 수행하여 약속된 땅 (Promised Land)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묘사된다. 그러하기에, 그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향후 모세 역할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역사를 예현할 인물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올드 캐로더스 맥캐슬린(the old Carothers McCaslin) 부계혈통의 마지막 백인 남성으로서 맥캐슬린 대토지의 유일한 적통 계승자이며, 어린 시절에 대자연 속에서 인디언 추장의 아들인 샘 파더스로부터 인디언의 ‘공존’ 문화를 배웠고, 이를 통해 타자에 대한 연민과 공감, 자기비움, 사랑의 능력을 전수받아 생태주의적 비전을 실천할 역량을 검증받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16세의 나이에 아버지와 삼촌이 작성한 낡은 노예 장부를 읽다가 자신이 물려받을 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가문의 오랜 죄와 수치로 얼룩진 ‘저주받은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21세 성년이 된 해에 자신의 상속권을 모두 사촌 카스 에드몬즈(Cass Edmonds: 올드 캐로더스의 모계혈통 자손)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숲속으로 들어가 평생토록 목수의 삶을 산다(김미정 2015:50).

그렇다면, 검증받은 특출난 능력으로 시대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보였던 아이작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포크너는 왜 소설의 가장 중심 이야기에 해당하는 아이작의 인생마저 실패 사례로 제시하는 것인가. 우선은, 그가 어떻게 생태주의적 비전을 얻게 되는지부터 검토해보자. 아이작의 생태주의적 사유로의 전환은 사냥지인 빅 바텀(Big Bottom)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작된다. 이곳에서 아이크(Ike; Isaac McCaslin의 어린시절 예명)는 10살 때부터 매년 11월에 열리는 사냥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생명체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연과 깊이 연결된 하나의 존재로서 겸허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배워나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총 7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려가라, 모세여』에서 「곰」 챕터이다. 이 소설에서 기본적으로 대자연으로서의 황야(wilderness)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진실을 가르쳐주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둘째, 앵글로 색슨의 탐욕에 의한 희생자 역할을 한다. 포크너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려 하였지만, 소설의 핵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곰」 챕터에서는 두 이야기가 서로 얽혀 진행된다.

선생으로서의 대자연의 이야기는 아이크의 사춘기 의식과 더불어 진행되는데, 한 대목에서 포크너는 대자연을 아이크의 대학이라고 부르고, 곧이어 대자연을 대표하는 토렘으로서의 올드 벤이 아이크의 모교였다고 덧붙인다(*GDM* 210). 그의 정신적 아버지이자 원시 대자연의 사제이기도 한 샘 파더스의 지도아래 어린 아이크는 대자연 속에서 수련 기간을 갖는다. 이 수련 동안 아이크가 통과해야 하는 테스트들이 소년에서 성년으로의 그의 변화를 증명해줄 것이었다. 아이크는 올드 벤을 쫓아 싸우다 나뭇그늘지는 개들을 보며 공포가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던 중 한 마리의 개가 자신의 공포를 극복하고 곰의 앞발에 닿을 만큼 가까이 달려드는 모습을 보며 용기의 의미를 배운다. 본인이 곰에 의해 주시되고 있음을 느꼈을 때 아이크는 공포를 체험하지만, 샘 파더스가 “두려울 수는 있지만 겁먹으면 안 된다”(*GDM* 207)라고 말해줬을 때 용기에 대해 조금 더 배우게 된다. 그래서, 포크너는 대자연 황야가 어린 아이크에게 가르쳐준 것이 사냥꾼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용기, 명예, 자긍심, 연민, 삶과 정의와 자유에 대한 사랑”(*GDM* 284), 그리고 “겸양과 인내”(*GDM* 192))이라고 요약한다.

사실, 주인공 아이크와 그의 스승 샘 파더스가 구현하는 사냥과 황야의 원리는 작품의 주조를 이어가는 중심축에 해당된다(강규한 2013:14). 「곰」에서 올드 벤 사냥을 위한 연례 의식은 자연 세계에 대한 구미의 양가적 감정의 상징으로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논의되어왔다. 다시 말해, 올드 벤은 사냥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아이크에게는 거의 신화적인 힘을 발휘하는 대삼림 그 자체의 재현물로 묘사된다. 인디언의 후손으로서, 숲속에서 야생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샘 파더스가 미혼에 자식도 없이 혈혈단신이라는 사실은 올드 벤과 주목할 만한 유사점을 가진다. 여러모로 작품의 곳곳에서 샘 파더스와 올드 벤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이 암시된다.

안내자이자 동시에 멘토로서의 샘 파더스와 함께 아이크는 대자연과 교

감하는 법을 배운다. 어린 아이크에게 대삼림, 황야는 ‘어머니’의 대체물과도 같다. 실제, 작품 속에서 아이크와 그의 생물학적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대신 그가 처음으로 원시림을 경험하는 대목이 상징적으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10살의 아이크가 처음 사냥꾼들을 따라 작은 배를 타고 빅 바텀에 들어갈 때, 배가 진입함에 따라 순간적으로 열렸다 닫히는 대자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마치 자신의 탄생을 목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GDM 195). 사냥꾼들이 매해 빅 바텀으로 방문하는 것은 올드 벤을 죽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연례 의식처럼 매해 11월에 그 곰과 조우하기 위해서이다. 숲속 동물들의 우두머리인 올드 벤은 대삼림의 파수꾼이면서 동시에 판관으로서 매해 방문객들을 조우하면서 누가 새로 사냥꾼 무리에 합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례 행사에서 아이크가 올드 벤과 조우하기 위해서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위해 정화되었듯이 문명의 이기로부터 단절되어 홀로 고립되어야만 한다. 샘은 그에게 “무서울 게야.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겁먹어서는 안 된다. 숲에서는 그 어떤 것도 네가 그것을 궁지로 몰아넣거나 네가 겁먹은 녀새를 맡게 하지만 앓는다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GDM 207)라고 말한다. 또한, 파괴의 도구이자 대자연에 대한 인간의 장벽을 상징하는 ‘총’을 내려놓지 않는 한 올드 벤은 누구도 자신을 보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그래서, 총과 함께 나침반과 시계까지 내려놓고 대자연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겼을 때 비로소 아이크는 올드 벤을 목격하게 된다. 바퀴 말하자면, 원시성이 가득한 대자연 앞에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오만함을 벗어버렸을 때, “단순한 미물이 아니라 먼 태고에 나타난 불멸의 원시 야생의 축도이자, 신격화된 존재”(GDM 193)로서의 올드 벤이 아이크의 입문(initiation)을 허락한 것이다.

흑인 노예와 치카소 인디언 추장의 아들로 태어나 사냥터 안내꾼 노릇을 하고 있는 늙은 남자 샘 파더스가 이끌고 수행하는 사냥은 대자연의 내적 질서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가 매해 안내하는 빅 바텀에서의 사냥 의식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대자연의 생명 질서를 체험함으로써 생태주의적 사냥꾼으로서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문명 속에서 살다가 정기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 원

시의 귀중한 특질, 즉 대자연 앞에서의 용기와 겸허함과 인내심을 배우는 정화 의식이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가족도 친척도 없는 치카소 부족 인디언의 마지막 후예로서 샘 파더스는 자신이 점 찍은 후계자 아이크에게 대자연의 지식과 원주민 사회의 오래된 지혜를 전수한다. 시계와 나침반 없이 황야에서 길을 찾는 법을 가르쳐준 것도, 어떻게 총을 다루는지, 언제 쏘고 언제 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준 것도 샘 파더스였다. 아이크가 처음으로 수사슴을 죽였을 때, 그의 얼굴에 죽은 사슴의 뜨거운 피를 발라 성인식을 치러준 것도 샘 파더스였다. 그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서 어린 아이크가 배우는 것은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체의 본질적 가치를 동일하게 바라보는”(김영미 2009:37) 생태주의적 관점이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크가 배우는 사냥은 단순한 살상 행위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불멸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원시 부족의 믿음의 체험으로 사냥하는 주체와 사냥당하는 객체가 서로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경이로운 대자연 속에서 스승 샘 파더스에 의해 틀 잡히고 배양되는 어린 아이크의 좋은 품성과 자질들이 그를 뛰어난 사냥꾼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탈피하여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게 한다.

샘 파더스의 계획에 따르면, 만물에 내재된 대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조화로운 삶의 태도를 중시하는 자신의 생태주의적 지식의 계승자로서 어린 아이크가 올드 벤의 포획과 그 죽음을 목격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자질은 인간으로서의 자긍심과 대자연 앞에서의 겸손이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대한 꿈, 올드 벤의 죽음을 설계한 사람이 탐욕스런 강탈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록 분 호간벡(Boon Hogganbeck)이 꿈의 심장에 칼을 꽂았지만, 올드 벤의 맞수가 될 또 다른 토렘으로서의 라이온(Lion)을 찾아내어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마지막 사냥을 진두지휘한 인물은 다름 아닌 샘 파더스였으며 그 옆에는 항상 조수로서의 어린 아이크가 있었다. 대자연의 사제와도 같은 샘 파더스가 그의 믿음의 근원지이기도 한 토렘으로서의 올드 벤을 파괴하는 일을 왜 기획하는지의 동기는 신성한 제의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사냥꾼 무리는 메이저 드 스페인(Major de Sapin) 소령과 맥캐슬린 에드몬즈(McCaslin Edmonds)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매해 올드 벤을 조우하기 위해 찾아가는 대삼림 빅 바텀은

백인 농장주들의 탐욕에 의해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었다. 사냥터의 소유주였던 메이저 소령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숲을 목재 생산업체에 조금씩 떼어 팔고 있었고, 맥캐슬린 에드몬즈 역시 농장을 짓고 자신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숲의 경계를 끊임없이 벌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인디언 후예로서의 분 호간백이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한때나마 위대한 사냥꾼이었던 분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삼림의 파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던 셈이다.

만일 샘 파더스가 대삼림의 사제라면, 올드 벤은 수장(chief)에 해당한다. 올드 벤에 의해 소년 아이크의 입문이 허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샘 파더스는 올드 벤을 사냥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고 용맹스러운 개를 찾아낸다. 라이온(Lion)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개는 마지막 사냥에 쓰여질 계획이었다. 샘이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란다.”라고 말했을 때, 어린 아이크는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 중에 누군가여야만 하는 이유예요. 마지막 날, 올드 벤이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이 되겠지요.”라고 대답한다(*GDM* 212). 말하자면, 올드 벤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샘 파더스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는 셈인데, 올드 벤의 죽음이 곧 임박한 대삼림의 파괴를 뜻한다는 점에서, 이는 한 시대가 저물고 또 다른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줄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자연의 현신적인 추종자인 이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대삼림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할 것인가? 그보다는, 라이온과 분 호간백과 마찬가지로 샘 파더스도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행동하는 일종의 도구 같은 존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대자연의 수호자, 안내자, 사제로서의 역할을 도맡아 하는 샘 파더스보다 더 깊이 대자연의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 올드 벤 사냥을 준비하는 샘 파더스의 모든 기획은 대자연으로서의 황야, 그 자체를 상징하는 올드 벤을 더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구하려는 경건한 바램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올드 벤을 사냥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가 연출되었을 때, 어린 아이크 또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샘 파더스는 대자연에 연결되어 있는 일부분과 같아서 올드 벤이 죽는 순간 그 역시 말에서 떨어져 임종의 자리로 옮겨진 후 죽음을 맞는다. 그래서 어쩌면 대자연이 희생되는 또 다른 방식이 바로 그 현신적인 추종자의 자기희생(self-immolation)인 셈이다. 하지만, 포크너의 더 큰 생태주의적 관

점은 아마도 아이크가 샘의 무덤을 찾아가 방울뱀을 만나는 마지막 장면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하겠다. 비록 다수의 비평가들이 그 이미지를 악에 대한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해석해왔지만 여기서는 명백히 포크너가 자연적 순환에 관한 미국 원주민들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숲에서 갑자기 나타난 방울뱀을 보며 어린 아이크는 샘이 여전히 숲에 존재하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샘이 자신에게 가르쳐주었던 방법들을 기억해내어 샘의 무덤을 찾아낸다. 그곳에서 아이크는 샘과, 그리고 그와 함께 문혔던 담배와 손수건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숲속의 비밀스러운 태곳적 장소 속에 다른 종류의 수많은 삶으로 변모되었음을 느낀다.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 수풀 속으로 사라지는 뱀은 죽음에 관한 아주 오래된 고대의 상징처럼 해석된다. 다시 말해, 원시적 대삼림에서의 죽음은 더 큰 우주의 섭리 안에서 삶의 대순환 속으로 흡수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렇듯, 샘 파더스로부터 사냥을 통해 대자연의 순리를 배우고 따르던 아이크였기에 성년이 되어서 땅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그의 결단은 일면 생태주의적 신념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만하다. 아이크는 할아버지 올드 캐로더스가 저지른 끔직한 죄가 땅의 지배와 소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한다(이명호 2003:233). 아이크가 보기에, 개척이라는 미명하에 땅을 착취와 정복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런 착취와 정복의 논리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인종 간의 지배와 착취로 이어지게 된다(이명호 2003:233). 그래서 이상주의자로 해석되는 아이크는 그와는 달리 현실주의자로 해석되는 사촌 카스 에드몬즈와의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형제라는 공동의 이름으로 살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과 함께 공유하며 평화롭게 살라고 주신 땅”(GDM 246)을 신의 원래 뜻을 거슬러 인간 사이에서 팔고, 사고, 자기 집안 자손에게 다시 물려주는 소유물로 삼는 한, 그와 연관된 인종 착취와 억압이라는 죄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파하며 땅과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소유하려는 시도들로 인해 맥케슬링가(家)의 땅은 물론 남부 전체가 저주받았다고 주장한다.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한 생태주의적인 공유와 공존, 조화와 평등을 꿈꾸는 아이크는 자신이 대토지 상속권을 포기하는 이유를 강변하며 자연법에 위배되는 토지의 개인소유와 반인륜적 노예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이

는 탐욕스러운 백인들의 착취와 정복의 논리가 ‘새로운 에덴’의 가능성을 파괴했다고 보는 포크너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이크가 자신에게 상속된 토지를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의 포기일뿐만 아니라 남부 문명의 그릇된 유산을 거부하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의 이유를 샘 파더스의 ‘자기희생’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실, 아이크가 유산상속 거부와 더불어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집안의 노예 장부를 읽다가 할아버지 올드 캐로더스가 흑인 여성 노예(유니스)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 사이에서 난 딸(토마시나)을 다시 겁탈함으로써 두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백인 남성이 번갈아 가며 작성한 흑인 노예 장부에 적힌 단 몇 줄만을 읽고도 참혹하게 희생된 (모녀지간인) 두 흑인 여성의 슬픈 절규를 유일하게 읽어내고 들을 줄 알았던 아이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동시에 아이작은 자신이 물려받을 것이 방대한 땅뿐만 아니라 자신의 할아버지가 저지른 강간과 근친상간, 그 결과로써의 간접 살인에 대한 평생에 걸칠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참혹한 현실을 인지한 후, 그 책임의 무게를 피하고자 오랜 죄의 역사만큼이나 노랗게 바랜 낡은 노예 장부를 영원히 덮어버리고 맥캐슬린 가문의 모든 책임과 권리에서 자신을 분리해낸 것이다. 즉, 그는 대의명분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도덕한 유산을 거부함으로써 끔찍한 가족사와 관련하여 원치 않는 죄책감과 책임감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촌 카스 에드몬즈는 아이작이 상속권을 양도하겠다고 할 때, 그의 선택이 일종의 ‘도피’라고 지적한다. 이블린 슈라이버(Evelyn Jaffe Schreiber 1997:478)도 아이작이 “사회적 책임감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인 포크너 또한 여러 인터뷰에서 “아이크는 단지 포기하고 사람들을 피하는 대신에 좀 더 긍정적인 행동을 취했어야 했다”고 반복해서 말한바 있다(LG 1968:225). 포크너에 따르면 ‘도덕 의식(moral consciousness)’과 관련하여 세 단계 유형이 있는데, 첫째, 사회에 존재하는 악을 보고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현실을 부정하는 유형, 둘째, 사회의 악을 인정하지만 관여하기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유형, 셋째, 사회의 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행동하는 유형이다(FiU 1959:62, 245-246; LG 1968:247). 포크너

가 주장하길, 아이크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사회의 불의에서 물러나 도피한 케이스이기에 둘째 유형에 해당하며, 셋째 ‘사회악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모세형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에 대해 모세형 인간이 될 때 그 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다(*FiU* 1959:62, 245-246; *LG* 1968:247).

Ⅲ. 아이작의 실패 원인과 새 희망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델타 가을」

「곰」에서 아이작이 토지 상속권을 포기하면서 사촌 카스와 논쟁하는 대목은 백인이 토지를 비롯해 자연과 다른 인간을 소유와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백인-인간-중심적인 관점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공존과 상생에 대한 생태주의적 윤리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가 본인의 도덕적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하고 그 이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음으로써, 어린 시절 정신적 스승이었던 샘 파더스의 안내에 따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배우고 깨우친 바를 누구에게도 전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립된 삶 속에서 그의 생태주의적 비전이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하고 소설 후반에 죽음을 앞둔 그의 무능함만 강조되는 것은 작품 속 가장 큰 아이러니다. 7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에서 「곰」 챕터가 보여주는 생태주의적 문제의식과 비전은 작품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심오하게 빛나 보이지만, 그렇게나 촉망받던 후계자였던 아이크가 사회적 책임을 내버리면서 샘 파더스가 아이크를 통해 백인사회에 전해주려 했던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인디언 문화유산 또한 사장되어버리고 만다. 결론적으로, 아이작은 ‘책임 회피와 방기’라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그의 도덕적 성장은 중단되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것이다. 이로써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남성 선조들의 사랑에 대한 무능력을 전수받게 된 것이고, 이후 평생토록 아이크 삼촌(Uncle Ike)으로 불리며, 불모형 인간이 되어버린다. 소설의 플롯 상으로도, 「곰」 챕터와 다음

챕터 「델타 가을」 사이의 빈 페이지는 아이크가 상속권을 포기한 이후 60년의 삶을 의미 없이 허비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실제로 텍스트에서 그 60년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계절의 순환에서 ‘가을’이 쇠퇴기를 의미한다면, 「델타 가을」은 아이크가 자신의 (Isaac, Moses, Christ의 역할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소명을 저버림으로써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극적 아이러니를 통해 보여준다. 일명 소설 속 ‘황야 3부작’의 마지막 챕터인 「델타 가을」에서는 이미 ‘빅바텀’ 황야가 거의 다 별채되고 아주 작은 규모의 델타 모양의 사냥터만 남아있어 그마저도 이제는 200마일이나 가야 만날 수 있다. 사냥을 위한 이번 델타 방문은 이제 80세가 된 늙은 아이크에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지식 없이 홀로 지내온 아이크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크 삼촌’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현재 맥캐슬린 농장의 실소유주인 로스 에드몬즈(Roth Edmonds: 과거 아이작이 맥캐슬린 가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한꺼번에 양도한 카스 에드몬즈의 손자; 김미정 2015:51)와 함께 빅바텀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인생의 선배로서 마치 오래전 샘 파더스가 자신에게 그러했듯이 손자뻘 되는 로스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려 한다. 하지만, 로스는 “그래서 당신은 거의 80년을 산 셈인데요. [...] 그동안 즐곳 어디에 계셨습니까? 죽어있었나요?”(GDM 329)라고 냉소적으로 받아친다. 이 말인즉슨, 아이크가 숲속으로 도망쳐 60년 동안 독처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회에 대해 죽어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며 따라서 후세에 전수할 가치가 있던 대삼림 자연에 대한 그의 생태주의적 기억, 진실, 경험은 소멸해가고 있는 황야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곰」 챕터 이후 「델타 가을」에 다시 등장한 아이크는 영웅적인 행동가가 아니라 늙고 쇠락해가는 무력한 방관자에 가깝다. 과거 어린 아이크는 대자연 속에서 수련을 통해 통찰력과 깨달음, 그리고 생태주의적 비전을 얻고 죽은 자들의 침묵된 목소리를 번역해낼 능력을 가진 자로써 사회악을 치료하고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인물로 선택받은 인재였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황야 방문에서 로스의 조롱을 받게 된 데 이어 죽음을 앞둔 아이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자신이 평생토록 거부해온 조상의 ‘죄악’이 그의 가문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스와의 애정관계를 통해 태어난 남자아기를 안고 남성들만의 전유지였던 사냥터(현재 시점에 이 델타의 공

간은 의미심장하게도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뒤집힌 삼각형 모양이다)로 찾아온 이름 모를 흑인 여성은 자신이 60년 전 아이작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형제’ 제임스 보삼프의 손녀라는 사실을 밝힌다. 이로써 아이크는 로스 에드몬즈가 집안의 흑인 여성과 근친상간을 저질렀음을 알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오래전 집안 노예 장부를 읽다가 본인이 해석해내고 저주했던 할아버지의 죄(흑인 여성 노예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태어난 자식들을 자식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돈을 주어 입막음하고 천륜을 저버린 짓)를 본인 자신이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 로스가 전해주라고 한 돈 봉투를 그녀에게 건네며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짓 말이다.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은 오래전 “근친상간에 따른 죄의 대가와 자식에 대한 의무를 돈으로 때우려 했던”(김미정 2015:52) 올드 캐로더스의 원죄를 되풀이하도록 로스를 망쳐놓은 이가 바로 아이크 삼촌이며 이젠 로스의 잘못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다고 힐난한다. 다시 말해, 윌세대인 아이크의 ‘책임 방지’로 인해 대신 대가를 치르는 후세대 인물 중 하나가 로스인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아이크가 결국 불모형 인간(a barren person)이 된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약속의 땅(Promised Land)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 성경적 맥락에서 봤을 때, 그는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Isaac)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는 상속받은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판단하고는 그 저주를 자기 대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후사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고 상속받은 땅을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아이크의 두 가지 판단 착오가 있었다. 첫째, “내려가라, 모세여(Go Down, Moses)”라는 소설 제목을 고려할 때, 호명받은 모세가 신의 낮은 백성들을 해방시켜 약속된 땅으로 이끌기 위해 내려가야 할 첫 번째 목적지는 말은 소명을 다해야 할 사역지로서 ‘세상의 낮은 곳(불의에 의해 핍박받는 애굽땅)’이었다. 둘째, 아이크는 자신이 물려받은 땅이 ‘저주받았다’고 버렸는데, 성서 원전 『출애굽기』에서 신의 백성들이 광야의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다다르게 될 ‘약속된 땅’은 ‘나’의 부와 명성 같은 물질적 보상을 보장해줄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아닌, 또 다른 소명에 응답해야 할 또 다른 의미의 사역지였다. 출애굽기 모티브를 반영한 소설의 주제를 생각해볼 때, “내려가라”는 명령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이 아무리 험한 고난

과 유혹이 만연한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각자 주어진 소명대로 성실히 살아 내야 한다는 뜻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려놓음’과 ‘자기희생’을 통해 예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의미로 연결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 아이크가 숲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드 벤을 마주한 순간은 ‘기름부음(anointing)’에 해당하는 제의적 순간인 것이다.

다시 성서적 맥락에서 말하자면, 이삭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의 예표라는 점에서, ‘약속된 땅’과 관련하여 (*Go Down, Moses*에서 Isaac, Moses, Christ의 역할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아이작이 완수해야 했던 소명이란 ‘사랑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예수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예표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다. 모세의 사명도, 예수의 사명도 궁극적으로 구원이었다면, 그 사명의 예표자 이삭으로써 부름받은 아이크가 이뤄내야 했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가 실천해야 했던 구원은 두 가지였다. 타인에 대한 구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 타인에 대한 구원이 ‘사랑하라’는 기독교 계명과 관련이 있다면, 자신에 대한 구원은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는 겸허함(*Go Down*)’과 ‘내려놓음’을 통한 옛 자아로부터의 해방(즉, ek-stasis;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대삼림 속에서 생태주의적 인디언의 지혜(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배우고 용기, 긍휼, 겸손 등을 체험하며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로서의 탁월한 재능을 증명했던 그가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세계로 후퇴하여 눈 감고, 귀 막고, 책임을 외면하고, 세상을 등져버림으로써 ‘약속의 땅’을 불모지로 만든 만큼이나 결국 자기 자신도 ‘불모형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기독교적 맥락에서, 자기희생을 통한 구원은 ‘내려가는 것(*Go Down*)’을 전제한다. 성서에서 예수가 스스로를 낮추어 세상 속에서 속직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모든 대가를 담당하였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상대를 보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구원의 상대로 보게 되어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살려야 했던 아이작이 자기중심적인 의로움(자기의, self-righteousness)에 갇혀버렸을 때, 이것은 그의 정신적 퇴행이자 사회적 퇴행이며, 그로 인해 청산되지 못한 죄의 대가가 여전히 후세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분명, 아이작이 저주받았다고 판단한 땅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는 이유 저변에는 그의 울

법주의가 깔려있다. 실제로, 카스와의 논쟁에서 자신이 상속권(과 함께 윤리적 책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파하면서 만들어내는 그의 논조는 타인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이 계획한 구원의 역사를 이행해야 했던 아이크가 자기의에 빠져 과거와 타인에 대해 사랑/공홀/용서가 없었다는 뜻이다. ‘구원’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되고, 이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야 한다. 그 전제로서 “내려가라(Go Down)”는 명령을 ‘내려놓음’으로 연결시킨다 해도, 이와 관련해 ‘자기(the self)’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의(自己義)/자기애(自己愛)에 기반한 ‘내 잣대’를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단순히 행복의 포기나 욕망의 비움이 아니라,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내 해야 할 바를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세상 속에서 기꺼이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행하는데 합당한 자로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적극 훈련받고 노력을 계속하는 일도 ‘내려놓음’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내려놓음은 단순한 자포자기나 책임 회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아이크가 노예 장부를 통해 선조의 과오를 알게 되었을 때 참된 비전을 통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였다면, 그는 비판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단순한 회피 이상의 무엇인가를 실천했어야 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계명을 실천하도록 신이 아이크를 선택한 것이라면, 그는 부름받은 곳으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만 했다. 즉, 세상 속으로 들어가 책임지고 과거의 빛을 청산해야 했는데, 그는 자기의(자기 잣대)를 내려놓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래서 자신의 소명을 저버리고 세상을 등져버림으로써, 결국 타인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데도 실패한 것이다. 한때 생태주의적 비전을 배우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전수할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그가 심남부의 가장 깊숙한 곳 델타에서 “(백년, 이백년 후라면 몰라도 이 땅에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직 아니야!) [...] 넌 감동이잖아. 북부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흑인 남자와 결혼해서 이곳에서의 일은 잊고 살아. 그게 너에겐 유일한 구원이다.”(GDM 344; 346)라고 진심으로 말했을 때, “어르신. 사랑에 대해 안 적도, 느껴본 적도,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까

망게 잊어버리실 정도로 너무 오래 사신건가요?”(GDM 346)라는 여인의 신랄한 질타는 아이크의 궁극적인 실패를 단적으로 꼬집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가을」이라는 제목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그 자체로 새 희망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캐슬린(McCaslin, 백인 부계 혈통)-에드몬즈(Edmonds, 백인 모계 혈통)-보샤프(Beauchamp, 흑인 부계 혈통)라는 세 후손 분파로 나뉜진 올드 캐로더스 가계도에서 백인 맥캐슬린 혈통은 아이크와 함께 곧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보샤프와 에드몬즈 혈통이 여인이 데려온 남자아기의 존재로 인해 다시 만나고 있다. 「델타 가을」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늙고 쇠약한 아이크가 겨울을 앞둔 늦가을을 상징한다면, 사내아기는 겨울이 끝난 후 다시 오게 될 새 봄, 즉, 변화의 가능성으로서의 델타를 상징한다. 아이크가 어렸을 때 황야에서 사냥을 통해 인내, 사랑, 겸손, 용기, 연민, 관용, 끈기를 배웠다면, 이 남자아기는 그러한 도덕적 가치들에 기반하여 진일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재목이 될 것이다. 그러한 상징적 의도를 담아 아이크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사냥용 썰피리를 남자아기에게 물려준다. 훗날, 이 아기가 어린 시절의 아이크만큼이나 생태주의적 지혜와 재능을 갖추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는 데 실패한 아이크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모세형 인간이 될 수 있을지 당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오래전 스스로 강변했고 평생토록 지키고자 했던 도덕적 기준들을 이제 와서 너무도 이율배반적으로 배신할 뿐만 아니라 선조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편협한 사고방식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크의 말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만큼 독자들은 이 남자아기가 상징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된다. 결국, 『내려가라, 모세여』의 이야기들이 맥캐슬린 가문의 모든 남성 인물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실패하는지를 면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이 아기는 사회의 미래 세대가 그 모든 실패의 이유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그래서 “내려가라, 모세여”라는 명령을 받고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인물로 기능할 수 있기를 독자들은 내심 응원하게 되는 것이다.

IV. 「내려가라, 모세여」: 다음 세대 모세형 인간을 위한 지금 세대의 책무 다하기

미국 남부 출신인 윌리엄 포크너는 본인의 고향인 남부 사회의 지독한 비극만을 소설의 주제로 다루기로 악명 높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강조한 바 있다.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끔찍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만큼 충분히 화를 내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며, 그것이 한 명의 작가로서 자신이 고향과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LG 1968:159-160). 그러한 이유로, 포크너의 소설 작품들이 늘 그래왔듯이, 『내려가라, 모세여』 또한 ‘실패’의 사례들에 중점을 두며, 표제작인 마지막 장을 제외한 앞서 여섯 개의 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무엇보다도 주요 남성 인물들이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사랑’에 있어서 무능력하고 실패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이 소설을 생태주의적 맥락에서 읽기 위해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중심인물인 아이작이 사회적/윤리적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그 결과 누가 대신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지이다. 그것이 저자 포크너가 제안하고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주의적 비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중심적인 텍스트’라고 오해까지 받고 있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는 작품의 중심 뼈대 이야기에서 부수적인 역할과 존재로만 그려지던 (흑/백의)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해석해볼 것이다. 실패하는 사례들만을 두고도 우리는 어째서 여전히 생태주의적 비전을 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논해야 하는지 답해보기 위해서이다.

저자인 포크너는 7개의 단편소설 모음집으로 간주되는 『내려가라, 모세여』가 결국 “한 흑인의 장례식 이야기”(A Negro funeral; LG 1968:48)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흥미롭게도 작품의 무게중심은 350페이지 가까이 되는 전체 분량에서 고작 몇 페이지만을 차지하는 가장 짧은 마지막 이야기 「내려가라, 모세여」에 실리게 된다.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새뮤얼 워샴 보샴프(Samuel Worsham Beauchamp)로 앞서 언급되었던 로스 에드몬즈와 더불어

아이작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신 대가를 치르게 된 또 한 명의 희생자이다. 살아생전 부취(Butch)라고 불렸던 그 역시 올드 캐로터스의 후손으로, 흑인(노예) 혈통의 마지막 자손이다. 몰리(Mollie Worsham)의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지만 집안의 불화를 견디지 못해 북부로 도망친 후 말썽 많은 인생을 살다가 시카고에서 백인 경찰관을 죽였기 때문에 교수형을 받게 된 것이다. 몰리는 손자의 사형집행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로스 에드몬즈가 나의 벤야민을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팔아버린 것”이라는 말을 주술처럼 되뇌며 애통해한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결론 챕터의 제목이자 소설 전체의 제목이기도 한 “내려가라, 모세여”라는 명령과 연관하여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벤야민(Benjamin)은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Joseph)의 동생으로 가부장제 위계질서에서 가장 힘없고 낮은 순위의 ‘배다른’ 막내 형제를 상징한다. 성서에서 요셉은 이삭(Isaac)의 손자이며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 자손(이삭과 모세를 거쳐 예수에까지 이르는)을 위한 ‘신의 약속’의 적통 계승자이다. 이 요셉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자리 잡아 번성하다가 파라오의 핍박을 피해 모세를 따라 출애굽(exodus)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므로 『출애굽기』의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는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로스 에드몬즈가 벤야민을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팔아버렸다”는 몰리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성서에 비유해 말하자면, ‘사랑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형제들이 요셉 이후로 또 한명의 형제를 배신하여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또 한 번의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바꿔 말하자면 또 다른 버전의 해방 서사 『출애굽기』가 새롭게 씌어져야 한다는, 언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목 『내려가라, 모세여』는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김미정 2015:52)

사실, “로스 에드몬즈가 나의 벤야민을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팔아버렸다”는 몰리의 말은 로스 개인을 향한 원망과 비난이라기보다, 이 집안의 남자들(맥캐슬린-에드몬즈-보삼프 분파로 이뤄진 올드 캐로터스의 남성 후손들)이 대대로 형제애에 실패해왔는데 그 비극이 자식 세대에서 다시 반복될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음에 한탄하는 것이다. 로스 에드몬즈는 앞서

『델타 가을』에서 부성애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다른 챕터에서는 형제애마저도 철저히 배신하는 비뚤어진 인격으로 묘사된다. 당시 미국 남부 사회에서는 ‘백색 신화’의 일환으로 우아한 백색 인형같은 귀부인 역할을 하는 백인 안주인 대신에 집안의 자녀 양육을 흑인 유모가 도맡아 했는데, 로스의 경우 생물학적 백인 엄마가 그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자마자 흑인 유모 몰리가 본인의 친아들 헨리와 똑같이 젖을 물리고 똑같은 사랑으로 둘을 형제처럼 키웠다. 그러나 로스가 세상의 이치에 눈뜨게 된 7살 무렵 아무리 선조의 이종잡혼으로 인한 ‘배다른 형제지간’이긴 하나 흑/백으로 뒤섞여있는 본인 집안의 백인 남성들과 흑인 남성들은 제도적으로 ‘형제애’를 나눌 수 없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도, 루카스(몰리 남편)와 헨리 부자가 집안의 흑인부계혈통인데 반해, 아버지 잭 에드몬즈와 자신은 백인모계혈통이라는 이유로 미묘한 기싸움에서 항상 열패감을 느껴야 했고, 더구나 자신을 길러준 몰리에게 여전히 깊은 애정을 품고 있지만, 그녀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아버지 세대에 이어 자신의 세대까지도 애정 싸움에서 항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패자’여야 했기 때문에, 소설의 현재 시점에 로스가 대농장의 실제 소유주라 하더라도 성장기 내내 겪어야 했던 ‘자격지심’과 ‘애정결핍’으로 인해 ‘사랑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훼손되어 있다. 말하자면, 아이작을 비롯한 앞세대 남성들의 책임 방기와 형제애 실패로 인해 후세대 남성들이 선조들의 죄를 반복하며 그들 인생 전체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부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성서의 『창세기』에서 노아(Noah)가 아들 3형제 중 ‘함(Ham)’의 자손들이 대대로 나머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하는 대목을 인용하며 함의 자손이 바로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 노예제의 역사는 신의 뜻이라고 인종차별을 정당화해온 바 있다. ‘사랑’을 계명으로 하는 기독교의 논리를 인종차별의 근거로 오용하는 이러한 모순을 비판하고 조롱하기 위해 흑인 노예제의 상흔을 다루는 미국의 유명 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함의 자손(Ham’s sons)’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몰리가 올드 캐로터스의 후손 가계도에서 마지막 흑인 자손인 새뮤얼 워삼 보샴프를 ‘벤야민’으로 지칭하는 것은 분명히 작가 포크너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배다른 형제이며, ‘형제애 회복’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해내야 할 막내가 ‘벤야민’을 뜻한다면, 결

국 한 집안 이야기인 이 소설에서 그 역할에 해당하는 인물은 부취(새뮤얼 워삼 보샴프)와 「델타 가을」에서 로스의 정부가 데려온 남자아기다. 이제 부취의 사망으로, ‘벤야민’의 역할은 보샴프와 맥캐슬린 두 개의 성을 함께 갖고 있는 남자아기에게 남겨졌기 때문에, 앞서 아이작(Isaac; Uncle Ike)이 사냥 뿔피리를 이 아기에게 물려준 것은 작품의 결말과 맞물려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잃어버린 형제이자 아들’로서 이미 희생된 ‘벤야민’ 부취에 대해서는 늙고 힘없는 흑인 여성인 몰리가 그의 시신이라도 가족과 공동체의 이름으로 되찾아와 제대로 된 애도 의식을 치러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부취의 시신을 고향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몰리의 단호한 요청은 단순히 죽은 손자를 불쌍히 여기는 할머니의 비통한 간청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2004) 식으로 말해, 애도될 수 없는 삶(ungrievable lives)은 애도될 수 있는 삶들(grievable lives)을 위해 비가시화되거나 은폐됨으로써 오히려 공동체의 경계를 공고히 하는 사회 부조리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비통해할 수 없고, 애도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쉽게 환원되어 버리는 사회의 누군가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기억하고 애도해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사회적 ‘타자(the other)’들의 죽음을 둘러싼 현재 사회의 비윤리적 권력구조를 드러내고 문제 삼음으로써 ‘더 바람직한 사회’를 향한 비전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왜냐면, 이 호소에 응답하여 ‘올바른’ 애도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사회 구성원들은 수동적이고 단편적으로 슬픔의 감정을 잠시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그 사람을 죽게 했는가?’, ‘공동체는 그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었는가?’, ‘그 죽음을 기억하거나 애도하지 않기로 한 사회의 결정은 누가 하는가?’, ‘이 사회가 애도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타자화, 혹은 폭력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는가?’ 같은 질문들을 생성해내며, 그와 관련된 보다 심오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하고 성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근본적으로 취약한 존재인 인간들 사이의 관계 방식을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주고 ‘조금은 더 나은’ 세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힘을 추동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몰리가 ‘부취’(즉, ‘벤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애도 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적인 요청이 아니라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구성원들이 마땅히 함께 떠맡아야 할 윤리적 책무에 대한 공적 요청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몰리는 부취의 이야기가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을 감수하면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을 신문에 실어달라고 엄숙히 요구한다. 아이작은 조부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죄와 희생자의 절규를 노예 장부 속 단 몇 줄의 행간을 통해 읽어낼 수 있었지만, 그 책임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실이 담긴 노예 장부를 덮어버렸고, 그로 인해, 반복되는 비윤리적이자 반인륜적인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조금이라도 다른’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모세형 인재’로 지목되었던 그가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맥캐슬링가(家)를 포함해 미국 남부, 더 나아가 탐욕스러운 백인들의) 죄의 대가를 후세대가 치르도록 만들었다. 그에 반해, 힘없고 늙은 흑인 노예 여성 몰리는 가문의 과오와 수치를 모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집스럽게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다른) 이야기를 써 나갈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서 부취의 이야기를 다룬 지역 신문의 기사는 백인과 흑인 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매체로 작성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의 비참한 인생사를 조롱하거나 비난할지라도, 적어도 대다수는 명백히 존재하는 흑/백 인종 문제로 인한 사회의 부조리와 그에 따른 상흔들을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없게 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현재 그들 사회의 부조리하고 불의한 속성, 그리고 그로 인해 쉽게 희생되고 잊혀지는 존재들이 있음을 인정하며, 애도의 바깥으로 밀려난 비식별적 죽음들을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현 사회의 생명정치 구조를 문제 삼게 될 때, 이는 정치적 실천일 뿐만 아니라 ‘애도될 가치가 없는 삶’으로 규정된 존재들을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비로소 정당한 자리로 회복시키게 되는 윤리적인 애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표제작인 마지막 장에 이 소설의 방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내려가라, 모세여』의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 몰리 옆에는 미스 워삼이 함께한다는 사실이다. 워삼 가문의 흑인 여성 노예였기 때문에 워삼이라는 성을 쓰고 있는 몰리는 같은 달에 태어난 백인 주인집의 딸 미스 워삼과 어린 시절부터 자매처럼 자라왔다. 그래서, 부취의 본명, 새뮤얼 워삼 보삼프에서 ‘워삼’과 ‘보삼프’라는 새로운 성의 조합이 중요하다.

흑/백의 경계를 초월한 포용과 연대의 윤리적 관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몰리와 미스 워삼 사이의 ‘자매애’가 앞선 이야기들에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형제애’에 대한 대안처럼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 노예와 백인 주인 사이의 유사한 관계 패턴이지만 남성들 사이에서는 실패하기만 하던 ‘사랑의 관계’가 두 여성 사이에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작가는 마지막의 짧은 분량의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포크너가 제시하고 있는 ‘자매애’는 노예제와 인종주의라는 ‘타자에 대한 억압과 배척’을 기반으로 한 백인 남성 중심의 미국 남부 사회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폭로한 다음 그 실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를 말하기 위해 그 ‘다른 방식’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김미정 2015:56). 그러므로, 표제작인 마지막 장에서 “내려가라, 모세여”라는 명령문과 관련하여 독자들은 바로 이 두 늙은 여성이 앞서 전개된 남성들의 이야기가 모두 실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주도함으로써 소설 전체의 제목이기도 한 그 윤리적 명령에 대해 누군가들은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대목은 이 두 명의 늙은 여성들이 흑/백의 구별 없이 주인/노예의 구별 없이 ‘벤야민’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마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애도 의식을 주도한다는 사실이다. 미스 워삼은 부취의 교수형 집행 소식을 전해주러 방문한 개빈 스티븐스(Gavin Stevens) 지방검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몰리는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길 원해요. 그 애는 반드시 돌아와야 해요. 그 애가 태어났던 곳으로 말이죠. 단지 관만 가져올 게 아니라, (시신일지라도) 그 애가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몰리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고 그 아이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 새뮤얼 워삼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 이건 우리 (모두)의 슬픔이에요(It’s our grief. GDM 358; 363).” 말하자면, 모세형 인간으로 지목되고 상징적인 기쁨부음까지 받았으나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역사적 죄(근친상간과 이종잡혼으로 인한 여성들의 강요된 침묵과 희생)에 대한 참회와 속죄를 위한 ‘역할 떠맡기’를 거부함으로써 평생을 불모형 인간으로 남아버리는 아이작 맥캐슬린을 대신해서 이 두 흑/백의 여성들이 과거

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 친인척 몇몇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장례 의식’을 요구하고 진행시킴으로써, 옛 과오와 상처를 어떻게 바로잡고 치유해야 하는지를 윤리적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김미정 2015:54). 그리고, 그녀들로 인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슬픔”이라는 천명에 공감하는 마을 공동체의 흑/백의 구성원들이 이전과는 달라진/달라져야 할 공존방식을 상상하고 또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포크너가 여러 인터뷰에서 강조했듯이 몰리는 소설 속에서 강한 모성과 인고의 힘을 보여주는 ‘흑인 어머니’로서 젊은 (흑/백의 남성) 세대에게 자기 편익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도덕성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인물이다(Fowler 2000:162-163). 다시 말해, 그녀는 ‘타자’와의 공존을 위한 모든 자기희생적, 윤리적 가치를 몸소 증명해내면서 계산 없이 묵묵히 한결같이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에 다음 세대의 모세형 인간을 가능하게 하고 그가 제대로 된 모세(새로운 아이작, 새로운 모세, 새로운 예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올바른 토양을 만들어주는 인물인 것이다(김미정 2015:54). 그녀는 ‘사랑의 정신’을 소진시키거나 방해하고 훼손하는 자들을 대신해, 가족 내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단위에서 사랑의 정신과 능력을 재생산하고 돌보고 되살리는 역할을 떠맡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돌봄 능력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몰리가 이끄는 마지막 이야기가 소설의 생태주의적 비전을 모범적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내려가라, 모세여”라는 명령을 가장 훌륭히 따르는 자는 바로 몰리이며, 이 엄청난게 왜소하고 늙은 흑인 할머니인 몰리가 주도하는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실패와 슬픔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강인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바로 생명다움의 핵심이며, 서로를 위해 곁에 있어 주고 돌보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면, 몰리와 미스 워샴이 이끄는 모범적인 실천은 그러한 생태적 비전, 즉 치유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고 생존을 넘어서 ‘다른’ 삶의 방식을 창조해내게 한다. 바로 이것이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공동체의 애도가 갖는 의의일 것이다. 두 늙은 흑/백의 여성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참여를 호소하는 공적 애도 의식을 통해 이에 응하는 마을 구성원들 중 누군가들은 과거의 편견과 왜곡되고 경직된 이데올

로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조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공존과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존재의 방식과 관계의 방식을 꿈꾸고 다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봄과 연대는 가장 효과적인 생태학적 극복과 치유의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돌봄과 연대는 단순히 인간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생태여성주의적 맥락에서 말하자면,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형제애’를 대신하는 ‘자매애’라기보다, 여성들의 보살피는 행위와 그에 따른 경험, 자연과 타인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와 관계지향성일 것이며, 그것이 소설 속 남성 인물들이 모두 실패하는 것과는 달리 마지막에 흑/백, 주인/노예의 관계를 극복한 두 명의 늙은 여성들이 돌봄과 사랑과 연대의 이야기를 주도하는 이유일 것이다. 보다 보편적으로 말해, 여기서 주장되는 ‘돌봄’이라는 개념은 ‘타자와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의 대상은 자기 자신, 타인, 소수자들뿐만 아니라 비-인간종과 생태계 전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공존과 상생의 무대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까지 아우르는 생태주의적으로 확장된 세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의식을 일깨우고 생태학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소설의 마지막 장 「내려가라, 모세여」를 통해, 공동체(혹은 소설의 독자들 중)의 누군가들은 타자로서의, 혹은 방관자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공존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주체로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분법적 사고의 해체를 통한 대립적인 갈등의 조정과 화해, 그리고 공존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생태의식의 핵심 목표라고 볼 때, 소설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애도될 수 없는 삶’으로 간주되었던 ‘벤야민’(새뮤얼 워삼 보샴프)의 장례 의식에 마을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저자 포크너는 시민 참여적인 ‘사유’의 가능성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유연하게 열려있는 정치적이자 윤리적인 연대와 동맹의 ‘생태주의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을 통해 포크너가 독자에게 촉구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논리를 내려놓는 과정으로써 무수하게 새로운 읽기의 방식, 사유의 방식, 그리고 존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죄스럽고 부끄럽다고 해도)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애도하기,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슬픔”

이라고 공감하여 각자의 무수한 방식으로 책임에 동참하기, 그것이 ‘새로운 출발’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몰리와 미스 워샬이 모범적인 실천으로 증명해 보여주듯이) 작가 포크너의 이러한 생태주의적 제안과 호소에 독자들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새로운 ‘모세형 인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지금-여기의 세대들이 떠맡아야 할 몫이자 책무일 것이다.

■ 참고문헌

- 장규한(2013), 「동물 생명 박탈의 생태비평적 조망: 미국의 전원에서 낚는 자연합일의 가능성과 자연 파괴의 위험성」, 『문학과환경』 12권 1호, 한국문학과환경학회, 7-32.
- 김미나(2021), 「생태비평으로 읽는 「곰」: 인간과 자연의 관계」, 『영어영문학연구』 47권 1호, 대한영어영문학회, 1-19.
- 김미정(2015), 「윌리엄 포크너와 토니 모리슨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윤리’로서의 여성적 연대 비교」, 『현대영미소설』 22권 3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47-78.
- 김영미(2009), 「포크너의 「곰」에 나타나는 생태주의적 비전」, 『문학과환경』 8권 2호, 한국문학과환경학회, 27-54.
- 박양근 · 배영주(2013), 「포크너의 「곰」에 나타난 생태의식」, 『영어영문학21』 26권 3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33~51.
- 이명호(2003), 「상상적 순수로의 복귀-윌리엄 포크너의 「내려가라 모세야」 읽기」, 『영어영문학』 49권 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227-250.
- Butler, Judith(2004),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Verso.
- Faulkner, William(1942), *Go Down, Moses*, New York: Vantage International, 1990.
- Fowler, Doreen(2000), *Faulkner: The Return of the Repressed*,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_____ (1993), “The Nameless Women of Faulkner’s *Go Down, Moses*,” *Women’s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2, 525-532.
- Gwyn, Frederick L., and Joseph L. Blotner, eds(1959), *Faulkner in the University: Class Conferences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1957-1958*,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Meriwether, James B. and Michael Millgate, eds(1968), *Lion in the Garden: Interviews with William Faulkner 1926-1962*, New York: Random

House.

Prewitt, Jr. Wiley C(1999), "Return of the Big Woods: Hunting and Habitat in Yoknapatawpha," *Faulkner and the Natural World*, ed. by Kartiganer D. M. and Abadie Ann J., Jackson: UP of Mississippi, 198-221.

Schreiber, Evelyn Jaffe(1997), "Imagined Edens and Lacan's Lost Object: The Wilderness and Subjectivity in Faulkner's *Go Down, Moses*," *Mississippi Quarterly* 50.3, Mississippi UP, 477-492.

Sivils, Matthew Wynn(2006), "Faulkner's Ecological Disturbances," *Mississippi Quarterly* 59.3, Mississippi UP, 489-502.

❖ ABSTRACT

The Ecological Vision in William Faulkner's *Go Down, Moses*

Kim, Mijeo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gainst the backdrop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illiam Faulkner fundamentally distrusted the ideology of progress that whites had transplanted to the “New World” of the United States, and diagnosed greed and rapacity as being peculiarly American. In particular, he saw destruction of the American Giant Forest and extermination of indigenous cultures as products of the modern white civilization’s desire to conquer, own, and dominate, which was closely linked to land ownership and slavery. This paper explores and suggests ways of practicing an ‘ecological vision’ through *Go Down, Moses* that strongly reflects Faulkner’s contemporary concerns and ecological interests. It shows how ecological insights lead to a critique of self-destructive relationships and a shift towards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ased on ethical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ree stories from the novel, which consists of seven stories, to examine how ecological ways of thinking and being are linked not only to relationships between member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but also to the ethical responsibilities towards future generations. In “The Bear”, the protagonist’s development into an ecological figure is examined; in “Delta Autumn”,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the protagonist’s avoidance and neglect of ethical responsibility are discussed; and in “Go Down, Moses”, the novel’s open ending is interpreted to discus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ent generation for future generations and the future possibilities of ‘coexistence and mutual growth’ for a better society. This study reveals Faulkner’s timeless ecological themes that resonate with readers’ understanding of nature, ethics, and the human journey.

Keywords: William Faulkner, *Go Down, Moses*, ecologism, symbiosis and coexistence, ethical decisions and actions

- 논문투고일 : 2023. 09. 02
- 심사완료일 : 2023. 10. 10
- 게재확정일 : 2023. 10. 11

